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의미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I. 서론

최근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조작적 정의나 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인생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한 고민으로써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연구의 활발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서양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행복 측정치를 대부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의 정서가 반영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서은국 외, 2010). 따라서 충남의 여건과 실정이 고려된 충남 도민에게 적용가능한 행복지수의 개발과 이를 통한 충남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남 도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조작적 정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도구를 본 연구를 통해 만들고자 한다. 특히, 충남 도민의 행복지수 측정과 더불어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의 선정에 있어 충남 혹은 도내 시군 단위에서의 실현가능한 정책대상 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수혜대상인 도민의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이러한 영역의 선정과 해당 영역별 변수들의 선택 및 측정, 그리고 정책방향의 설정으로 요약된다¹⁾.

II. 행복의 개념과 이해

1. 행복의 개념

1)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전략과제로서 본 발표자료에서는 영역 및 지표선정을 위한 지표 풀(pool)의 구성 단계까지만 작성되었다.

표준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복된 좋은 운수”이다. 둘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이다. 행복(happiness)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 상태를 특정 짓는 안녕(安寧)의 상태”이다. 학자들은 행복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Veenhoven(1991)의 정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주관적 안녕을 크게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반적인 개념에는 생활만족, 욕구충족, 그리고 기쁨수준을 포함시켰고,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 자긍심, 그리고 통제신념을 포함시켰다(정동섭, 2002; 김승권 외, 2008 재인용).

행복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척도는 국내총생산이다. 세계은행은 매년 국내총생산을 발표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은 경제지표로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김윤태, 2010).

행복을 측정하는 경제학적 접근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74년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국내총생산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행복감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Easterlin, 1974).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73~2004년 동안 실질임금은 2배로 증가했으나, 행복감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듯하다(김윤태, 2010; 이희길, 2012).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가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의 도입이다. 이는 자연히 ‘좋은 삶(good life)’ 혹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다양한 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삶의 질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크게 두 가지의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만족도에 대한 측정값이다. 기존의 ‘삶의 질’ 접근법에서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삶과 그 조건에 주목하여, 전체 사회차원에서는 중요하게 고려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삶의 질’ 접근은 기존의 GDP로 대표되는 경제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형평, 공평, 자유, 사회적 유대와 같은 전체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희길, 2012).

이렇게 행복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성공적인 삶’, ‘좋은 삶’으로 대체되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능가하게 되었다. 행복을 포괄적 의미에서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객관적인 ‘성공적 삶’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욕구충족의 논리를 벗어나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는 궁여지책인데, 두 가지 발전 경향의 종착점을 비교해보면 하나의 일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개인의 삶이라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면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삶 또는 좋은 삶,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만족이 바로 그것이다(박성환, 2009).

2. 행복에 대한 이해

1) 행복의 사회학적 이해

사회학에서 행복에 관해 주로 다루는 지표는 교육, 가족, 시민참여 등 주로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원동력 및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며 개인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성취는 좋은 직업과 고소득, 사회적 계층의 상승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성취는 직접적으로 직업과 소득으로 연결되며,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은 개인들에게 있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1차적인 집단으로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및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며(Trewin, 2001) 이웃공동체와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결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다.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과 돌봄 정도, 화목한 가족관계의 유지는 개인이나 사회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가족 이외에도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 소속감과 더불어 사회신뢰,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적 참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이다.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참여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와 여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소득이나 건강, 주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가의 개념은 산업화 이후 집을 떠나 휴식이 없는 노동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발생하였다.

안전 영역은 사회가 범죄와 재해,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범죄나 전쟁, 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불안감은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안전한 사회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행복의 심리학적 이해

정신건강(mental health)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남용 등 다양한 정신장애(mental illness)를 경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며, 반면 정신장애로 이환(罹患)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에 대한 전통적 견해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신개념을 설파한 Keyes(2002, 2005b)는 진정으로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과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며,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다 적게 느끼는 사람이다.

‘심리적 웰빙’을 구가하는 사람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내면적인 기준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하며, 친밀감을 느끼면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늘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 인생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주관적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의 선발주자에 해당하는 Diener 등(1999)은 주관적 삶의 질이 크게 두 영역의 세 가지 상호 독립된 차원들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하나는 정서적인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인지적인 영역이다.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호 독립적인 두 차원 즉, 즐거운 감정(pleasant affect)과 불쾌한 감정(unpleasant affect)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되는데 상호간에 상당히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소위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접근(bottom-up approach)이라 하여, 삶을 구성하는 하위 개별 영역들에 대해 만족하게 될 때,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및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다. 한편, 또 다른 접근은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접근(top-down approach)이라 하여,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에 따라 동일한 조건일지라도 만족도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외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성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기 존중감, 외향성, 낙관적 성격, 자기 통제감과 같은 성격 특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하는데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iener & Emmons 1984; Diener et al., 1999; 김명소·한영석, 2006 재인용).

이처럼 행복의 심리학적인 측면은 주로 주관적 만족과 관련된다. 주관적 만족은 다른 영역들(사회학, 경제학, 환경학 등)에서 살펴본 객관적 지표들과 달리 각 개인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나타내며 평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의미한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지표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객관적 지표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적 측면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이외에도 주관적 측면에서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아울러 각 영역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주관적 측면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서은국, 2012).

3) 행복의 경제학적 이해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라 행복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요소로 사람들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미에서건 돈, 소득, 부와 같은 경제적 요소들일 것이다. 그런데 현대 경제학자들은 부가 증대해도 일정 수준이 되면 부와 행복간의 상관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최항섭, 2009).

경제적 조건에서는 경제적 활동 및 자원에 대한 통제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원 획득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연결망 및 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Trewin, 2001). 일자리가 없는 개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자리는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의 여부와 아울러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Trewin, 2001).

4) 행복의 환경학적 이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는 사회지표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지 않았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그 중요도가 높아져 환경 지표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후변화나 생태계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자연자원의 고갈 등이 문제시 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정도와 자연자원의 보호, 생태계 유지 등이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환경은 환경관련 질병발생 등으로 건강과도 관련되며,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 발생, 자연자원의 감소, 생태환경 유지 등과 관련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환경은 단순히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적절한 기후와 쾌적함 뿐 아니라 자연자원의 생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행복과 삶의 질 측정사례

1. 행복측정에 대한 접근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공유하면서도 이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행복을 보는 시각과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단순히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고유의 독특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기분이 좋은 감정인 쾌락, 고통, 불안이 없는 상태인 불쾌감의 부재, 만족스러운 삶이라 느끼는 만족감에 기인한다고 한다.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것에 비해 값진 삶(virtuous life)과 좋은 삶(good life), 행복한 삶(happy life)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간다. 역사적으로 행복에 대한 초기 접근은 철학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경험적 행복에 접근하고 있다. 경험적 접근은 크게 생물학적 접근, 사회적 접근, 긍정심리학적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철학적 접근은 행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기원전 35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야말로 인생에서 그 자체로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행복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 혹은 객관적 상태가 아닌 가치로운 주체적 행동이다.

생물학적 접근은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호르몬이나 약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경계의 물질이 정신적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약물을 통해 정신적 즐거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연구 등이 있다.

긍정심리학은 다양한 학문을 모두 아우르는 학문으로 행복에 있어 성격, 기질 등과 같은 내적 요인만을 강조한 접근과 소득, 물질 등과 같은 외적 요인만을 강조한 접근으로 나누어 질 수 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둘 모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행복이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 ‘행복’의 개념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²⁾. 그 하나는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으로 맞추는 반면, 다른 접근법은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한다(Noll, 2004).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측정값이다.

객관적 지표의 옹호자들은 사회지표는 사회정책을 안내해야 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

2) 통계개발원,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06, pp 14-18 재구성

장이다. 이 정보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하고 이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주관적 지표는 정책과정에 왜곡을 가져오고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는 비합리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Veenhoven, 2002).

객관적 지표는 실제 조건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었지만 복지 또는 행복의 고려사항으로 적합한 차원들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좋고 나쁜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합의를 명료하게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충남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한 논쟁에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객관적인 조건과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의 시각을 함께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의 사회지표’ 작성시 객관적 지표와 사회조사를 통해 확보한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표 1>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최종목적	객관적 삶의 수준 향상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 제고
평가주체	전문가	일반국민
장점	정책활용/시계열 비교 용이	국민의 다양한 견해 반영/실제 체감 측정
단점	심리적 측면 간과/측정의 신뢰성	열망(기대)의 수준에 영향

자료 : 이희길, 충남발전연구원 행복위크숍 발표자료 2012. 2. 25

2. 행복과 관련 지표

① 행복지표

기존의 행복측정 관련 지표들은 UNDP 인간개발지수, 행복한 지구 지수(HPI, The Happy Planet Index), 행복공식(영국BBC 방송), 부탄 국민총행복지수(GNH), 행복도측정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행복을 측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관점, 객관적 관점, 혼합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표들은 행복공식, 행복도측정조사, 국민총행복지수 등이며 객관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표는 객관적 UNDP 인간개발지수 등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지구 지수 등이다.

기존의 행복관련 지표는 상당수 국가별 수준이나 순위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며 특히 지역별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② 사회지표

1960년대 들어 개발되기 시작된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가치체계 및 개발개념의 변화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수준에서의 사회복지나 삶의 질 같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에 관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ECD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국가적 평균치를 나타내어야 하며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 세부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것 사이의 균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균형이란 규범적인 고려사항, 해명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프로그램 관찰과 평가 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에 포함되는 사항은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보건, 질병, 자연환경, 소득, 문화예술, 참여, 공공질서 등에 관한 정보이다.

③ 삶의 질 지표

1991년-1992에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군(WHO)의 주관 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회의에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삶의 질이란 '자신들의 문화 및 가치체계의 관점과 그들의 목표, 기대, 표준 및 관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위(위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광의적인 접근이며 개인의 육체적 건강, 정신상태, 독립정도, 사회적 관계, 신뢰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삶의 질이 문화적, 사회적 및 환경적 부문에 내재되어 있는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타나내는 것이다.

삶의 질 또는 생활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는 경제, 사회, 환경지표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모건, 소득, 고용, 생산성, 교육, 교양, 자유, 개인주의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지표체계는 6가지 영역(물리적, 심리학적, 독립성,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측면을 강조하는 삶의 주관적 지표체계라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은 100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 간편척도의 경우 26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는 4개의 항목(신체적 건강, 심리적, 사회적 관계, 환경)과 24개의 하부척도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④ 환경 질 지표

환경 질 지표(Quality of Environment Indicators)는 환경상태의 측정을 위한 일련의 지표라 할 수 있다. 환경 질 지표는 1970년대 초 도시환경문제의 악화에 따라

환경지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78년 OECD의 도시환경지표개발위원회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사회지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환경지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지표 개발의 주요대상은 공기 및 수질 오염의 측정, 위험물질의 사용 한도 측정, 폐기물처리, 토지이용과 토양보전, 자원고갈, 야생동물의 관리 등 이다.

⑤ 지속가능 발전 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로 발달하여온 사회의 성장이나 발달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흔히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복지를 만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본전제는 현상에 대한 기술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표체계를 논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 범위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며 환경, 자원, 생태,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제도, 정치,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보는데 있어 단순히 환경의 질 변화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수용능력 변화에 대한 관찰을 보다 중시한다.

3. 행복 및 관련 지표의 적용사례

1) 특정 국가에 대한 사례

①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LI)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는 일본 국민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 국민의 의식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본 경제기획 국민생활국에서 1992년부터 제안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PLI는 개인 생활의 풍부함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기본분야에 더하여 개인의 여가와 자유시간 활용 측면을 파악하여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관계의 8개 활동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안전, 공정, 자유, 쾌적 등 4개의 평가축을 설정해 각 활동영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영역별 중요도에 따라서 지표구성을 하였다.

② 캐나다의 웰빙 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 웰빙 지수(이하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다차원적 척도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CIW는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진보의 의미'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범국가적 지표개발 프로젝트로서, 1999년부터 캐나다 지도자, 전문가, 대중 등 각계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CIW는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건강(Health),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 여가와 문화(Leisure

and Culture), 시간사용(Time Use), 교육(Education), 환경(Environment)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덟 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 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다시 수십 개의 변수들로 측정된다. CIW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일한 지수와 각 하부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한 지수(Headline indicators)의 구축하고자 한다.

③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조사하고 있는 국민총행복지수는 경제적인 고도성장이 아닌 전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탄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행복지수라 할 수 있다. 이 GNH라고 하는 개념의 아래, 부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촉진(the promotion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 문화적 가치의 보전과 진흥(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 자연환경의 보전(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 바람직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the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국민총행복 지수는 부탄인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시간의 활용(Time Use),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문화·전통(Culture),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환경(Ecology), 생활수준(Living Standard), 거버넌스(Governance) 등 9개의 규범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몇 가지 지표에 의하여 평가된다.

④ 홍콩의 삶의 질 지수(CUHK; Hong Kong Quality of Life Index)

홍콩의 삶의 질 지수는 홍콩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삶의 질 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문화, 경제, 환경 영역의 21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지표들은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지수계산은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합계 값을 100으로 설정하여 연도별 변화율을 파악한다. 21개 지표 중 6개 지표(스트레스 지수, 삶의 만족도, 언론비판지수, 언론자유도 지수, 정부수행 지수, 현재 경제상황 지수)는 연구자들에 의해 측정되어 산출된 지표이다.

2) 국가 간 비교에 대한 사례

①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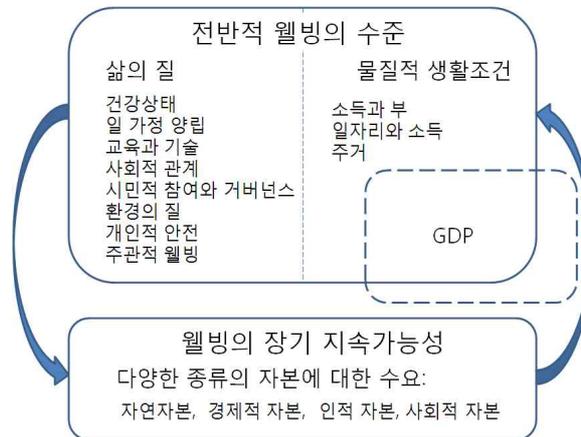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DI)는 170여개 UN회원국을 대상으로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차원은 평균수명, 교육정도, 교육기회, 1인당 GDP 등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다. 인간개발지수의 구성은 세 가지 차원의 산술평균으로 세 가지 지수를 더한 뒤, 3으로 나누어 산출된다³⁾.

② OECD의 삶의 질 지수(How's Life Index)

OECD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사회발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등 각국의 웰빙 수준을 개념적 단계가 아닌 실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항목별 및 전체 순위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OECD의 How's Life에서는 크게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세 축으로 하는 틀을 따르고 있다. 물질적 생활조건 및 삶의 질은 현재의 웰빙과 관련된 반면 지속가능성은 미래의 웰빙과 관련된다. 웰빙측정과 관련 접근방법은 가계 및 개인에 중점, 웰빙결과에 집중, 웰빙의 분포에 관심, 웰빙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 모두 고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질적 생활조건은 3개 영역인 소득과 부, 직업과 임금, 주거이며 삶의 질 8개 영역은 건강상태, 일과 여가생활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적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 등이다.

<그림 1> OECD How's Life의 개념적 프레임



3) $HDI = 1/3(\text{life expectancy index}) + 1/3(\text{educational index}) + 1/3(\text{GDP index})$.

④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내리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삶의 질 척도(WHOQOL;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라는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WHOQOL은 100개의 세부문항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원적인 측정도구이나 지나치게 문항이 상세하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해 단축형인 WHOQOL-BREF도 개발되어 있다.

⑤ EIU의 삶의 질 지수(EIU's Quality of Life Index)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서베이 결과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의 구성을 위하여 74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 서베이 점수를 사용하였다.

4. 행복 및 관련 지표의 연구에 대한 검토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표산출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산출을 위해 사용된 개별지표들이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지표에 부여된 가중치는 적절한지 등의 문제이다.

국제기구와 외국의 행복지수들은 중점을 두는 영역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활용한 지표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대표성 있는 지표를 활용하였는가에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합리적 선정이 중요한 과정이다.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행복지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과 평가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변화양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국내연구 검토

한국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개별연구들로 일회성 연구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민 행복지수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범위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본 연구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표의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이현송(1997)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측정내용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연구의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질문항목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② 국제연구 검토

국제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간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가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통계자료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의 구성에 있어 조사기관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측정기관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사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나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지표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국가별 연구

국가별 연구는 행복지수 보다는 삶의 질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비교보다는 그 사회의 시계열적인 비교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그 사회의 특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반영하는 주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주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주관적 지표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다. 영역의 구성에서 있어서도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 사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OECD에서도 국가별 행복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지표는 아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수의 개발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은 참고된다.

④ 개별 연구

개별 연구들의 내용은 주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되고 있으며 측정내용 또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만족도, 자아성취감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항목으로 국가 또는 지역의 행복지수에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행복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가에는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지표 및 측정을 위한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복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표들의 영역구분 방식은 대부분 기존 연구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의 결정요소는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사회관계 측면, 생활환경 여건, 자아성취와 만족감, 교육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측정지표의 구성에 있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결과 측정지표

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바, 연구 및 활용목적에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사용방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표 2> 선행연구의 영역구성과 내용

지표명	측정구분	지표구성		영역내용
		영역	지표	
UNDP의 인간개발지수	객관적	3	4	평균수명/교육수준/생활수준
EIU의 삶의 질	객관적/주관적	9	9	물질적 안녕/건강/정치적 안정성/가족생활/공동체생활/기후/직업안정성/정치적 자유/ 성평등성
NEF의 행복한 지구 지수	객관적/주관적	3	3	평균수명/생태학적발자취/삶의 만족도
WHO	주관적	6	100	신체적 건강/심리적 측면/자립성/사회관계/환경/종교 및 신념
캐나다 웰빙	객관적/주관적	7	37	생활수준/시간사용/건강/생태계/교육/공동체/시민참여
부탄 GNH	객관적/주관적	9		심리적웰빙/시간활용/공동체활성화/문화전통/건강/교육/환경/생활수준/거버넌스
호주 웰빙	객관적/주관적	9		인구/가족과 공동체/건강/교육/직업/경제자원/주택/범죄/문화와 레저
행복공식	주관적	3	4	개인적 특성/생존욕구/고차원욕구
한국인의 삶의 질(이현송)	객관적	6	30	소득/보건/교육/노동/문화정보/형평
행복지수 공식개발 (김명소 외)	주관적	16	97	경제력/사회정치문화환경/외모/건강/자녀성정/부모 및 친지관계/배우자의 사랑과 신뢰/타인과의 관계/사회적 지위/자기수용/자기개발/자립성/여가/긍정적 인생관/사회봉사/종교
서울시민 행복 지수	주관적	8	29	경제/문화교육/복지/사회안전/생태환경/생활환경/시민시정/공동체
신국민생활지수 (일본)	객관적	8	204	주거/소비지출/근로/양육/보건의료/여가/교육/교제,관계
홍콩의 삶의 질	객관적/주관적	3	21	사회와 문화/경제/환경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주관적 지표를 강조하고 있고 비교가능성과 정책활용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 두 측면 모두 중요하다. 객관적 지표의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주관적 만족도나 감정은 측정될 수 없기에 한계가 될
